

광주지역 실업률 전국 최고

6월 중 4.1% 달해 …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아

전국 신규취업자 15만명 하회 40개월래 최저

지난달 광주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로 치솟는 등 경기 위축으로 인한 고용침체의 꼴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국의 경우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와 화물연대 파업 등이 맞물리면서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3년4개월 만에 15만명 이하로 '곤두박질' 했다.

16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4.1%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3.1%)은 물론,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부산(3.9%) ▲인천(3.9%) ▲서울(3.8%) ▲대구(3.7%) ▲대전(3.7%) 등의 실업률이 높았다.

광주의 실업률 급등은 원자재값 폭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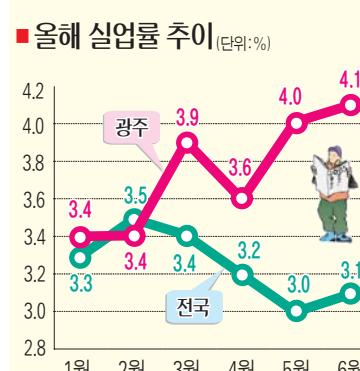
과 내수침체 등의 여파로 지역 제조업체들의 인력 감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7만8천명)에 비해 10.6%(8천명) 줄었다.

전남도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8만9천명)보다 15.8%(1만4천명)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실업자는 지난달 1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4.7%(2천명)나 증가한 것으로 실업률은 1년 새 1.7%에서 1.9%로 높아졌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악화는 전국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민생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3월 18만4천명으로 10만명대로 떨어진 이후 4월(19만1천명), 5월(18만1천명) 등으로 4개월째 20만명을 밟고 있다.

산업별로는 경기둔화의 여파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제조업 등의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건설업은 1년 전에 비해 6만1천명 줄었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제조업도 각각 3만6천명, 3만3천명 감소했다.

또 지난달의 경우 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 속에 화물연대 파업 등이 맞물리면서 일자리 증가 풍화에 한 끽을 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는 대내·외 악재로 인한 경기둔화가 이어진 가운데 노동시장의 제도적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고용부진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 국가 신용등급

피치사, 'A+' 그대로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16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의 'A+'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신용등급 전망 역시 '안정적'으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피치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과 통일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재정 부문과 대외 부문이 견전하기 때문에 현 등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치적인 어려움이 새 정부의 개혁정책을 다소 둔화시킬 수 있지만 국가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적다(minimal rating implications)고 평가했다.

재정 부문에서 피치는 한국이 9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견전 재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외채 증가 문제와 관련해 피치는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올해 현재 66%로 외환위기 당시의 250%에 비해 크게 낮고 외채 증가 원인도 10년 전 경상수지 적자 보전용으로 활용했던 것과 달리 재정거래나 혁신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무더위 식히는 비치카페

광주신세계가 1층 문화광장에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원한 비치카페를 설치,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비치카페에서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2시와 4시에 음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말에는 라이브 공연도 펼쳐진다.

(광주신세계 제공)

국민·우리·신한·농협·하나지주 세계 100대 은행

광주銀은 589위 … 1위는 英 HSBC

세계 100대 은행에 국내 은행으로는 국민은행과 우리금융, 신한지주, 농협, 하나지주 등 5개가 포함됐으나 30위 안에는 한 곳도 들지 못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더 뱅커(The Banker)' 7월호에 실린 세계 1천대 은행(지난해 말 기본자본 기준) 가운데 국민은행이 전년보다 6계단 상승한 세계 56위를 기록하면서 국내 은행 중에 순위가 가장 높았다.

우리금융은 65위, 신한지주는 77위, 농협은 90위, 하나지주는 93위에 올랐다. 우리금융과 농협은 전년의 각각 67위와 109위에서 순위가 올라갔지만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은 76위

와 91위에서 하락했다.

세계 1천대 은행에는 기업은행(118위), 외환은행(119위), 대구은행(367위), 부산은행(380위), 광주은행(589위), 전북은행(970위)이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대 은행은 2006년까지 9년 연속 미국 은행의 끌이었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에는 영국 HSBC(1천50억달러)가 차지했다.

씨티그룹(892억달러)은 전년에 이어 2위에 머물렀으며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889억달러)가 3위, JP모건체이스(887억달러)가 4위를 차지

했으며 지난해 1위였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834억달러)는 5위로 밀렸다.

세계 25대 은행에는 미국 5개, 영국 4개, 일본·프랑스·중국 각 3개, 네덜란드·이탈리아 각 2개였으며 우리나라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SC제일은행의 모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도 49위에 머물렀다.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은행은 일본의 미쓰이시은행으로 ICBC,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미즈호그룹 등이 뒤를 이었으며 국민은행은 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중국 공상은행(ICBC)이 1위였고 중국 건설은행(2위), HSBC(3위), 중국은행(4위) 등 중국 은행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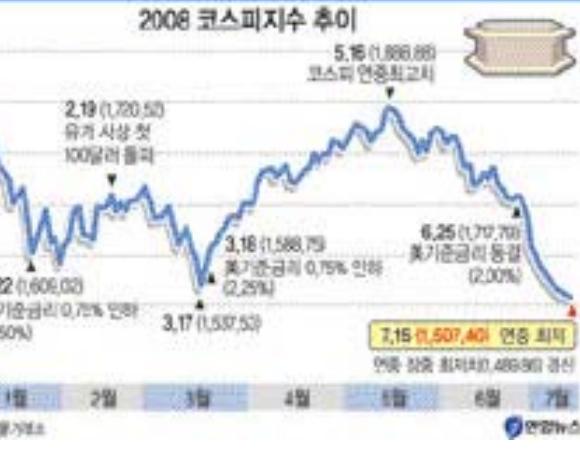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상담직원(광주고객지원센터)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17	062-370-6800
두메푸드시스템(주)	[외식부] 영양사·사업·경력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0	062-571-6000
㈜미보	조선기자재 관련 부문별 청규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1	062-946-7000
㈜한결악품	정규직 경리/사무·여직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3	062-655-7177
프리마스에이치알(주)	[주5일] 광주역 앞 SK텔레콤 114상담원	고졸/경력무관	2200~2400	07/24	062-383-1756
전라도친환경농산물식품사업단	오픈마켓 상품이미지 작업 후 등록 및 관리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7/25	062-529-9190
네오텍	인사총무 및 경리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7/25	062-602-7926
㈜토담건설	건설회사 영업/입찰/사원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7/25	062-574-9401
㈜지디	스티커, 팜프렛, 카탈로그 디자인 편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7/25	062-956-2813
(유)엘케이정보통신	[고객상담/CS/전산] 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7/25	010-4643-1100
㈜지구	산업용기계정비 기술영업원	대졸/경력무관	1800~2000	07/26	062-953-4553
진은산업	제품포장 및 적재 남자직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7/26	062-601-6169
삼성시엔지	생산직(전자부품조립 및 기공) 정규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7/29	062-515-910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악세스에도 심리적인 지지선인 코스피 1,500선을 고수, 1,500선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용불안이 갈수록 심해지며 경기둔화, 기업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보이고 현재 증시의 투자심리는 극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1,500선이 무너진다면 지난 2년간 매매공방이 치열했던 1,450선이 다음 지지선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닥 모를 증시
1500서 멈출까

지지선 확인땐 매수 전략 유효

더라도 미국 신용위기와 국제유가 고공행진, 경기둔화, 달러 악세스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로 반등에 나서지 못하고 횡보장세를 이어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스피는

장 종 1,488.75로 연 종 최저치까지

떨어져 불안심리를 부추겼으나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순매수하며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를 유발해 장 후반 낙폭을 줄였다.

현재 증시는 가격논리보다는 위축된 투자심리에 의해 수급이 꾸이는 상황이어서 미국 신용문제가 더 악화하거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1,500선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코스피 1,500선이 무너지면 기술적으로 볼 때 작년 증시가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하기 전 매매공방이 치열했던 1,450선에서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증시가 추가하락해 1,450선에서 지지를 받

기업들, 현금 있어도…

설비보다 증권투자 치중

韓銀 5천여 제조업체 현금흐름 분석

작년 업체당 평균 149억씩 투자 활동

지난해 국내 제조업체들이 설비투자보다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투자에 치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총자산 70억원 이상 제조업체 5천188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2007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체의 투자활동 현금지출은 업체당 평균 149억5천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9.8% 증가했다.

이 가운데 설비투자 등 유형자산에 대한 순지출 규모는 평균 90억3천만원으로 3.9% 감소했다. 유형자산 순증액이 줄어든 것은 2002년(-2.2%) 이후로 5년 만이다.

반면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순지출은 평균 32억8천만원으로 41.5% 급증했고 단기투자증권 등 유동자산 순지출도 평균 18억4천만원으로 전년(2억4천만원)의 8배 규모로 커졌다.

투자자산은 만기 1년 이상인 금융상품, 유동자산은 만기 3개월~1년인 금융상품으로 주로 구성된다.

제무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은 평균 23억4천원의 순수입을 기록해 전년 2억5천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배당금 지출은 17억5천만원에서 18억2천만원으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차입금은 17억2천만원에서 35억1천만원으로, 자본금은 6천만원에서 7억8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차입금 급증은 M&A 등 대규모 지분투자에 필요한 차입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한국이 '기름장사'로 돈 번다고?

상반기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출 183억달러